

'예열 끝' 광주FC, 오늘 첫 승 사냥

오후 7시 대구와 리그 3R
'부상 회복' 펠리페 조커 투입
불붙은 공격·안정된 수비
울산전 선전 후 팀 자신감 상승



예열을 끝낸 광주FC가 펠리페 조커를 앞세워 대구에서 2021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0일 오후 7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

리그1 2021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수원삼성과의 개막전에 이어 울산현대를 상대로 안방에서 첫 경기를 치른 광주는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승점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지난 라운드 울산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수원과의 첫 경기에서 2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는 8개의 슈팅을 날렸다. 이 중 5개가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 막힌 유효슈팅이었다.

선방소로 광주의 거센 공세를 막은 조현우는 2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두 경기 만에 공격에 불을 붙인 광주는 중원과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골키퍼 윤보상의 만점 활약 속 포백수비도 든든하다.

'캡틴' 김원식과 '성난황소' 이찬동은 강한 압박을 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중원의 사령관' 김중우는 부드러운 볼 터치와 패스,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공격에도 활약소가 되고 있다.

측면 수비수에서 전방으로 전진한 이찬동은 분위기를 바꾼 특별카드가 됐다. 엄원상은 특유의 스피드로 울산을 흔들었고, 김주공의 움직임도 한층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이번 대구행에 '괴물 스트라이커' 펠리페가 동행한다.

부상에서 회복하느라 아직 시즌을 개시하지 못



'캡틴' 김원식이 이끄는 광주FC가 10일 대구FC의 안방으로 가서 시즌 첫 승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6일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윤빛가람을 막아선 김원식(오른쪽). <광주FC 제공>

한 펠리페는 이번 대구전에서 조커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5위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며 저력을 보여준 대구는 올 시즌에도 세진야를 중심으로 탄탄한 조직력 축구를 과시하고 있다.

김진혁은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물오른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팀의 주축 멤버였던 김대원이 강원FC로 이적했고, 구성윤은 김천상무에 입단했다. 또 세진

야의 의존도가 커진 만큼 상대 입장에서는 공략 루트가 단순해졌다.

광주는 지난해 대구와 프로축구 역대 1경기 양팀 합계 최다점 타이 기록을 합작한 적이 있다.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광주가 6골을 넣었고, 대구가 4골을 기록하면서 무려 10골이 쏟아졌다.

골 폭죽을 터트리면서 대승을 거뒀던 광주는 이번 방문에서도 끈끈한 조직력으로 상대를 막고, 불붙은 공격으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투지의 플레이로 팀을 이끌고 있는 김원식은 "아직 첫 승을 거두진 못했지만, 울산전을 계기로 선수단의 사기와 자신감이 많이 올랐다. 이 모든 게 선수단 모두가 하나 됐기에 가능한 것 같다"며 "대구 원정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 반드시 승점 3점과 함께 시즌 첫 승을 일궈내겠다"고 밝혔다.

광주가 울산전 여운을 살려 대구에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시즌 첫 골 '전남' 올렉 K리그2 2R '베스트11'

전남드래곤즈의 시즌 첫 골을 장식한 올렉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2라운드 10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전남의 외국인 선수 올렉도 명단에 포함됐다.

올렉은 지난 7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 전남 10분 골을 기록했다.

왼쪽 측면에서 올렉이 시도한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남의 2021시즌 첫 골이었다. 그리고 경기가 1-0 전남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골은 결승골이 됐다.

앞선 충남아산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골 운'이 따르지 않아 아쉽게 0-0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남은 행운이 가미된 올렉의 골로 두 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한편 1승 1무로 기본 좋은 출발을 한 전남은 14일 오후 1시 30분 2연승 중인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원정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드베데프, 세계2위

男 테니스 '빅4' 아성 균열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준우승자 다닐 메드베데프(3위·러시아)가 15년 넘게 이어진 '빅4'의 아성에 균열을 일으킨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는 9일 "메드베데프가 15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처음으로 2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로저 페더러(5위·스위스), 앤디 머리(116위·영국) 등 남자 테니스에서 '빅4'로 불리는 선수 이외의 인물이 단식 세계 랭킹 2위가 된 것은 2005년 7월 이후 이번 메드베데프가 15년 8개월 만이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 2위는 '빅4' 가운데 2명이 항상 차지했다.

2005년 7월 중순 레이튼 휴이(호주)가 2위였다가 그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나달이 2위로 올라섰고, 이후로는 '빅4'만이 세계 랭킹 1, 2위를 나눠 가졌다.

1996년생인 메드베데프는 '빅4'의 장기 집권이 시작된 2005년에는 불과 열 살도 되지 않았다.

메드베데프는 지난 주 끝난 ATP 투어 ABN 암로 월드 토너먼트에서 결승에 올랐다면 8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2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회전에서 탈락해 2위에 오르는 시기가 1주 미뤄졌다.

이번 주 메드베데프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막한 ATP 투어 오픈13 프로방스(총상금 53만4790 유로)에 출전하며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 16강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올 첫 전국대회 2관왕



화순군청 전주이가 '2021 전국동계대학·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샷을 하고 있다. <화순군청 제공>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1 전국동계대학·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서 개인전 1위, 복식 1위에 올랐다.

국가대표 전주이는 지난 7일 열린 단식 결승전에서 백수민(시흥시청)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순군청 최고참 유재란과 국가대표 정나은은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이정현·고아라(포천시청) 조를 2-0으로 완파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지훈련이 취소되는 등 힘든 여건에도 운동에만 전념해 준 선수들이 고맙다"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에서 열리고 있는 '2021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선수권대회'에는 화순군 선수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대학리그 우승' 축구부 선수단 축하



김혁중(왼쪽에서 다섯 번째) 광주대학교 총장이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에서 우승한 축구부 이승원 감독(왼쪽에서 네 번째)과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에서 우승한 축구부 선수단을 초청해 축하했다고 9일 밝혔다.

축하 행사에는 이승원 감독과 정승운 코치를 비롯해 주상 오건택, 최우수선수상 김태민, 득점상 박규민 등 대회 개인상 수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혁중 총장은 대회 우승기와 트로피를 전달받고 코치진과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 총장은 "동계 훈련기간에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전념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면서 "학교의 이름을 드높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욱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축구부 선수단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광주대 축구부는 지난 6일 경남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바다의 땅 통영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에서 제주국제대를 5-1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다. 전국단위대회 우승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채희중 기자 chae@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미나리
- 2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 3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미션 파서블
- 4관 미나리
- 5관 미션 파서블
-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9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통과 제리
- 7관 세세커플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소울
- 8관 세세커플 브레드, 카오스 워킹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
산책